

‘벚꽃으로 온 어린왕자’

보성 대원사 ‘어린왕자 禪문학관’
4~5일 영호남 문학인 화합한마당
보성문협·경남 나래문학회 등 참석
보성 출신 문정희 시인 특강도



어린왕자가 여행했던 행성과 별나라 여행을 모티브로 재현한 어린왕자 禪문학관. <어린이 禪문학관 제공>

이맘때 그곳에 가고 싶다. 보성 대원사. 사찰로 향하는 5km에 이르는 길은 벚꽃이 만개해 꽃대길을 이룬다. 사시사철 어느 때 가도 좋지만 4월 초순에 가면 벚꽃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다. 대원사로 향하는 벚꽃길은 마치 선계를 들어서는 듯한 착각을 준다. 한국의 100대 아름다운 길로도 선정될 만큼 전국의 명소로 정평이 나 있다.

대원사는 삼국시대 고구려 승려 아도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송광사의 제5대국사인 자진이 크게 중창하고 당초 명칭이었던 죽원사를 대원사로 개칭했다고 전해온다.

특히 대원사에는 한국의 선 문화를 소개하는 어린왕자 禪문학관이 있다. 대원사 회주인 현장스님이 지난 2022년 설립했으며 전남사립문학관 1호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어린이들이 선 문화를 모티브로 정체성을 찾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그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한다.

이곳에는 1943년 발행된 ‘어린왕자’ 번역 단행본을 비롯해 세계 100여개국 72개 언어로 발행된 도서 등 300점의 자료가 소장돼 있다. 생텍쥐페리 작가실과 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해마다 ‘어린왕자 세미나 및 예술제’를 개최하고 있다.

어린왕자 禪문학관이 영호남 문학인의 화합한마당을 개최해 눈길을 끈다.

4~5일 문학관에서 여는 이번 한마당의 주제는 ‘벚꽃으로 온 왕자’. 문체부와 한국문학관협회, 한국문인협회 보성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2023년 지역문학관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현재 어린왕자 禪문학관 상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양인숙 아동문학가(문학박사)가 기획했다.

양 작가는 ‘벚꽃 그늘 아래를 걸으며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를 생각하고 ‘마음으로 보는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어린왕자

자와 여우의 말을 되새겼으면 한다’며 “이번 행사로 우리 문인들도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벚꽃으로 온 어린왕자’는 보성문인협회(회장 위승환)와 경남 울산나래문학(회장 박정옥) 회원들 그리고 수전지역 시인들대 대거 참여할 예정이어서 영호남 문인들이 함께하는 뜻있는 문학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문협과 울산 나래문학의 인연은 지난 2015년 보성군과 울산 남구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7년 울산 나래문학이 보성문인들을 울산으로 초청했고 보성문인들도 답방을 추진했지만 그동안 코로나로 연기됐다. 그러나 이번에 어린왕자 선문학과 보성문협의 협조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보성 출신 문정희 시인의 특강. 국립한국문학관 관장인 문 시인은 ‘어린왕자에 대하여’를 주제로 영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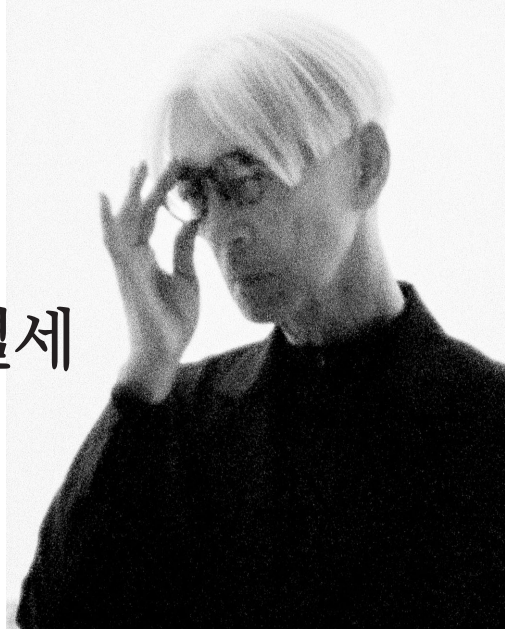
시인들에게 어린아이의 맑은 눈과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면 누구나 시인이다, 라는 의미의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제 앞서 4일 오전 10시 30분 명봉역에서는 보성문학회가 주관하는 시 문화가 예정돼 있다. 시 문화는 시와 문장을 낭독하는 행사로 명봉역 앞에 세워진 문정희 시인의 ‘명봉역’을 둘러보는 행사와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5일에는 회주인 현장스님의 ‘향공’이 아실마당에서 펼쳐진다. 기공 중 하나인 ‘향공’은 파드마삼바바가 전수했다고 전해지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 나뭇 기운을 손끝을 통해 3척의 깊은 곳에 묻어버린다는 의미가 있다.

문학관 강연과 한 줄 글쓰기도 마련돼 있다. 어린왕자 세미나실에서 ‘어린왕자를 만나다’를 주제로 한 강연이 펼쳐지며 심상에 남는 이미지를 간략하게 표현하는 ‘한 줄 글쓰기’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카데미 수상 ‘영화음악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 별세



사카모토 류이치

‘마지막 황제’·‘남한산성’ 등 작업
백남준·이우환 작가와 협업도

영화 ‘마지막 황제’ (1986)로 아시아 최초 아카데미 작곡상을 받은 일본 출신 영화음악 거장이자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사카모토 류이치(坂本龍一)가 암 투병 도중 별세했다고 교토 통신이 2일 보도했다. 향년 74세.

1952년 도쿄에서 태어난 사카모토는 도쿄 예술대학 재학 중이던 1978년 일렉트로닉 장르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그룹 ‘엘로 매직 오케스트라’(YMO)로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전자음악, 일렉트로 팝, 오페라, 록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작품 활동을 펼친 그는 특히 영화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배우로도 출연한 영화 ‘전장의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 Mr. Lawrence) (1983)를 통해 영화음악의 세계에 뛰어들었다. 그는 히트곡 ‘rain’ 등이 담긴 영화 ‘마지막 황제’ (1987)로 아카데미 오리지널 음악 작곡상, 그래미 상 등을 차지했다. 또 ‘마지막 사랑’ (1990), ‘리틀 붓다’ (1993)로 골든글로브와 영국 영화아카데미상을 받았다.

그는 환경, 평화문제 등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었다. 2001년 9~11 테러,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이 발생했을 때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했으며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지난달 별세한 오에 겐자부로와 함께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며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또 2015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던 안보 법안에 반대하며 시위장에서 마이크를 잡기도 했다.

삼립 보전단체 ‘모어 트리스(more trees)’를 창설한 그는 ‘도호쿠 유스 오케스트라’를 설립해 재난 피해 지역 어린이들의 음악활동을 지원해오기도 했다.

사카모토는 한국과도 인연이 많다. 백남준과 교류하며 영상과 음악을 결합한 멀티미디어 작품 ‘울스타 비디오’(All Star Video)를 발표하기도 했으며 이우환 화백은 사카모토가 투병중인 올해



Ryuichi Sakamoto

이우환 화백이 작업한 사카모토의 마지막 앨범

발매한 음반 ‘12’ 표지 작업을 했다. 그는 또 황동혁 감독, 이병헌 주연의 영화 ‘남한산성’ (2017)의 음악 감독을 맡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을 받았으며 국내 애니메이션 ‘안녕, 티라노: 영원히, 함께’ (2019), 재일교포 이상일 감독의 영화 ‘분노’ (2016) OST 작업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작곡가 유희열이 발표한 곡이 사카모토의 곡 ‘아쿠아(Aqua)’와 유사하다는 표절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4년 7월 인두암에 걸린 사실이 알려졌지만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일흔한번째 생일인 지난 1월17일엔 6년 만의 오리지널 앨범 ‘12’를 발표했다. 작년 12월엔 온라인 콘서트 ‘류이치 사카모토:플레이 더 피아노 2022(Ryuichi Sakamoto: Playing the Piano 2022)’를 공개했다. 콘서트 실황은 오는 14일 다큐로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인터넷 상에는 수가, 배철수, 정재형 등 그를 추모하는 음악인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제20회 영랑시문학상에 김선태 시인

수상작 시집 ‘짧다’ 상금 3천만원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시인이자 목포대 국문과 교수인 김선태 시인이 제20회 영랑시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시집 ‘짧다’이며 상금은 3000만원.

영랑시문학상운영위원회는 올해의 수상자로 김선태 시인의 시집 ‘짧다’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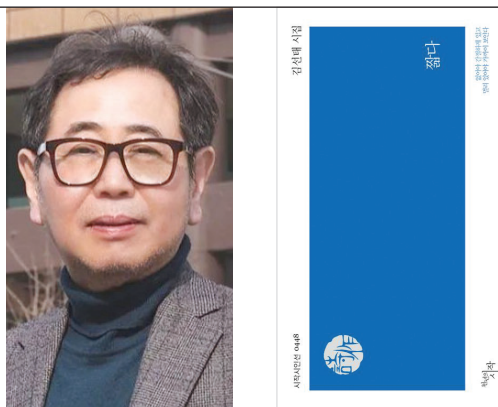
올해로 제20회를 맞은 영랑시문학상은 남도의 소월로 불리는 김진 출신 시인 김윤식 시인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김남조 시인 등 원로 시인부터 작고한 김지하, 김남주 시인을 비롯해

최근 고재종, 나희덕 시인 등 중진에 이르기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들이 수상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문학상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선태 시인은 같은 시집에 실린 시 ‘단팹’으로 최근 교보생명이 주최하고 대산문화재단이 선정하는 2023년 광화문 글판 부문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진 출신인 김선태 시인은 “간이역”, “동백숲에 길을 묻다” 등의 시집과 “풍경과 성찰의 언어”, “진정성의 시학” 등의 평론집을 펴냈으며 ‘시작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영랑문학제 기간 중인 오는 14일 오후 3시 강진 시문학파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선태 시인은 “요즘은 살아가기 바빠서 시나 책을 읽기가 힘든 게 현실이다. 삶에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시는 위안과 힐링을 준다”며 “영랑시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돼 영광이며 앞으로 더 좋은 시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체험·강연·배움

광주비엔날레 전시 연계 공공프로그램 진행

전시와 더불어 다양한 체험에도 참여하세요. 오는 7일 개막하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와 연계한 공공프로그램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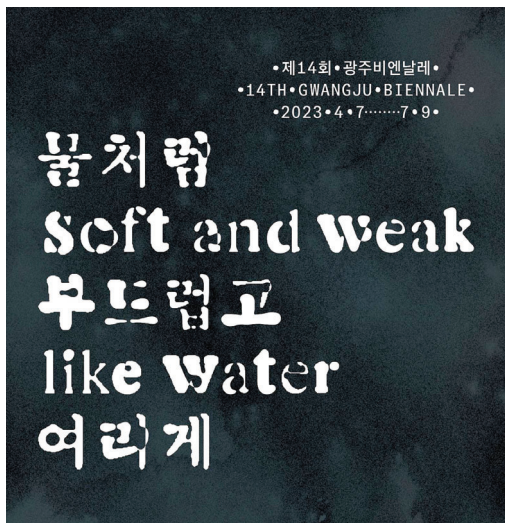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전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객들에게 의미 있는 전시 관람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프로그램은 어린이, 청소년, 가족, 시민 등 다양한 세대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관객참여프로그램’, ‘대화와 강연’, ‘배움과 체험’으로 구성됐다.

관객참여프로그램은 관람객이 작품을 단순히 시각적으로 감상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직접 만져보고, 제작해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체험해볼 수 있다.

한국의 1세대 실험예술작가 김구림, 이경용, 이승택의 작업과 함께하는 관객참여프로그램은 제3 전시실(화-일 오전 10시-오후 5시)에서 상시 운영된다. 관람객들은 신체로 캔버스로 활용한 김구림의 ‘바디페인팅’을 비롯해 이경용의 ‘바디스케이프 76-3’, 이승택의 ‘무제(이 물결으로 무엇이든 만들어도 좋습니다)’ 작품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세계적인 사운드 아티스트 타레 아투이 작품과 연계한 ‘소리와 진동 워크숍’(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은 전통악기장 서인석과의 협업한 작품 ‘The Elemental Set’(2023)의 구성 원리를 관객과 공유한다.

‘대화와 강연’은 아티스트 토크와 주제 확장 토크로 구성된 매월 거시기홀에서 마련된다. 아티스트 토크는 본전시 참여작가인 김순기(4월 12일 오후 2시), 이끼바위쿠르르(5월 13일 오후 4시), 마윤키기(6월 17일 오후 4시)가 함께하며 허경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임수영 제14회 광주비엔날



레 보조큐레이터가 대담에 참여한다. 광주비엔날레 웹사이트에서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주말에는 ‘배움과 체험’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열린다. ‘GB 예술탐험대’(매주 토요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선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작품의 캡션을 직접 써보고, 나만의 작은 전시를 기획해보도록 마련됐다. ‘손이 움직이는 시간’(매주 목요일)은 목판화와 직조 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창작워크숍이다.

또 다른 본전시장인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전시와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이 토요일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밖에 전시 개막 주간에 맞춰 운영되는 시민참여워크숍도 4월 9일(오후 3시) 광주비엔날레 거시기홀 열린다. 본전시 참여작가 팽목 솔람이 광주에서 제작한 신작을 공개하고 시민과 함께 첫 번째 판화를 찍어보는 목판화 체험 행사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오보에·플루트·바순...서정적 봄맞이

광주시향, ‘GSO 실내악 시리즈’...20일 금호아트홀

실내악의 즐거움. 웅장하고 화려한 교향악단의 연주도 좋지만, 몇 개의 악기가 어우러진 실내악이 주는 매력 또한 크다.

광주시향교향악단은 단원들이 다양한 앙상블을 이뤄 진행하는 ‘GSO 실내악 시리즈’를 통해 클래식 팬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올해는 4월 첫 공연을 시작으로 5월, 7월, 9월, 10월 모두 다섯 차례 실내악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첫번째 무대는 오보에, 플루트, 바순 등 광주시향 목관 파트 단원들이 참여한다.

‘Trio for Beethoven’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오보에 수석단원 김영주를 주축으로 차석 송애리, 송용주가 오보에 3중주를 연주하며 플루트 차석 박소현과 바순단원 김남훈, 피아니스트 김동준이 서정적인 트리오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연주 레퍼토리는 모두 베토벤의 곡으로 구성했다. 첫 곡은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 삽입곡 ‘우리 두 손을 맞잡고’에서 영감을 받아 베토벤이 두 대의 오보에와 잉글리시 호른을 위한 곡으로 편곡한 ‘우리 두 손을 맞잡고 변주곡 C장조 WoO.28’로 문을 연다.

이어 연주하는 ‘2대의 오보에와 잉글리시 호른을 위한 3중주’는 세 악기가 연주하는 독립적인 선



오보에 김영주

플루트 박소현

율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마지막 곡 ‘플루트, 바순과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WoO.37’은 베토벤이 바순 연주자이기도 했던 프리드리히 루돌프 안톤 폰 베스터홀트-기첸베르크 백작 가족을 위해 작곡한 곡이다.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티켓링크 예매. 전석 1만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